

내년 전주시 살림규모 1조6587억원

시, 시의회 심의 거쳐 내년도 본 예산 확정·편성

내년도 전주시 살림규모가 1조 6587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전주시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 총 1조 6587억원 규모의 2019년도 본예산을 확정·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1조 5258억원)보다 1329억원(8.7%)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올해 본예산보다 1,215억원(9.2%)이 증가한 1조4474억원, 특별회계는 113억원(5.7%) 증가한 2,113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기 머물고 싶은 청년희망도시 만들기 △아동·청소년 등 약자를 보듬고 미래가치를 지켜주는 사업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환경 개선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전주제1산단 재생사업 6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5억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2개소 120억원이 편성됐다. 또, △전라강역 재창조 복원 30억원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40억원 △서화동 예술마을·용머리 여의주마을·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 110억원 등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사업,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40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2억원 등 사회적경제분야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

됐다. 또한, 시는 △청년취업 프로젝트 5억1천만원 △청년청 건립 2억원, △지역주도 및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42억원 △청년창업성장 기반 조성 12억원 등을 집중 투자해 청년희망도시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의 미래를 위한 아동·청소년 예산으로 △덕진공원 맑곶하우스 조성사업 4억원 △중화산도서관 건립 22억원 △아동수당 지원 328억원 △개방형 창의도서관 15억원 등의 예산을 세웠다. 특히, 시는 미세먼지와 악취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종합계획 수립 2.5억원 △도시숲 조성사업 30억원 △전기자전거 구매지원 28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쾌적하

고 편안한 시민 휴식공간 창출과 걷고 싶은 도시 실현을 위해 △아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5억원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 4.5억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16억원 △지능형교통체계 ITS구축사업 30억원 등을 반영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예산배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재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2019년 예산은 전주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고, 시민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사란·생태·문화·일지리의 핵심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운영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자동차 흠집내서 수리비 챙겨볼까?”

50여명 대상 몰래 훼손한 후 3000여만원 가로챈 렌터카 영업소장·종업원 등 3명 붙잡혀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뒤 수리비를 가로챈 렌터카 영업소장과 종업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업소장 김모씨(24)를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주와 대전지역 렌터카 영업소에서 50여명을 대상으로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범인 A모씨(25)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모씨 등은 차량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건에 의료용 핀셋 등의 금속물질을 감춘 뒤 흠집을 내 수리비 명목으로 20~9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의 범행 대상은 운전면허 취득 1년 이하의 초보운전자와 여성 등으로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민사 소송

하겠다”며 언성을 높여 수리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인 김모씨는 종업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가르쳐준 뒤 1건당 5~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경찰은 렌터카 건물의 CCTV영상과 피해금을 교부받은 금융계좌 등을 분석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조사에서 김모씨는 범행을 극구부인 했다. 김현익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김모씨는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하고 종업원은 불구속 입건했다”며 “유사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는 26일 덕진공원 연화교 인근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용역 추진을 위한 현장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한옥마을 대성공영주차장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

전주한옥마을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한 '전주한옥마을 대성공영주차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된다. 총 102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대성공영주차장은 원당마을 인근 대성동 344-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8,140㎡의 노외주차장으로 조성됐으며, 대형버스 23면과 일반차량 613면 등 총 63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대성공영주차장에는 도시 열섬현상 완화하기 위해 교목과 관목 등 나무 1만4646주와 초화류 5,480본을 식재했으며, 친환경 잔디블럭 등 투수성 포장재를 적극 활용해 조성했다. 한편, 시는 기존 치명자산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은 오는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씩어가는 덕진연못, 개선 대책은?

전주시, 수질개선 대책 용역 추진 착수보고회 수질오염 원인 분석 목표수질 달성 대책 수립

전주시가 썩어가는 덕진연못을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전주시는 26일 덕진공원 연화교 인근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관계공무원, 용역 수행기관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7개월간 추진되는 덕진연못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용역 추진을 위한 현장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덕진연못이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최초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국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중

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데 따른 조치로, 시는 덕진연못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 8월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승인 절차를 거쳐 국비를 지원받아 △덕진연못 준설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덕진연못 수질개선과 전주를 대표하는 수변·휴양형 저수지로 만들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용역 책임을 맡은 김강주 교수는 덕진연못 수질오염 원인분석과 수질개선 방안 마련, 효과 검토 등 용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덕진연못에

대한 수질조사 및 오염원 조사 등의 기초조사와 덕진공원 유역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장애수질 변화와 수질개선대책의 효과를 예측한다. 특히, 시는 덕진연못 수질오염 원인을 분석해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기로 했다. 또, 수립된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사업과 중·장기 수질개선대책, 수질개선 및 목표수질 유지를 위한 방안 등으로 구분해 청정 덕진연못 만들기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시는 수립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비지원을 이끌어내 덕진연못을 1년 내내 맑은 물이 흐르는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바꿔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수립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비지원을 이끌어내 덕진연못을 1년 내내 맑은 물이 흐르는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바꿔나간다고 밝혔다. 시는 수질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현재 추진중인 덕진연못 연화교 재가설 사업과 덕진공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인 천년가래 정자 신축·삼태극 은하수길·연못 주변 아라리오점 조성사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덕진공원이 시민들에게 널리 사랑 받는 휴식공간이자 여행지로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SW 품질인증 제품 경쟁력 확보 도우미

전주정보문화진흥원 지역SW품질역량 강화사업 ICT/SW기업 아이티스테이션의 지속 성장 일궈내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이 운영하는 지역SW품질역량 강화사업이 ICT/SW기업의 제품 경쟁력 확보와 기업 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진흥원은 전북지역 ICT/SW기업인 (주)아이티스테이션(대표 이장규)가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의 SW품질인증위원을 통해 도내 ICT/SW기업인 (주)아이티스테이션에 대한 홍보활동 및 납품에 나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주)아이티스테이션은 SW개발 및 유지보수를 주요 업무로 하며 10여년 간 정보보호 관련 시스템을 운영,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호환된 유일한 C/C++인증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기업의 파일배포 시스템(TA-FDM, GS인증)은 보안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배포 관리장치 등록 특허를 기반으로 액티브엑스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Non-ActiveX 방식의 시스템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중앙관리형 SW 보안가이드를 준수해 무결성 상조검증 안전 기술을 갖춰 우정사업본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적연금연계 시스템에 납품됐다. 또, 이 시스템은 전북도청, 전북도교육청, 전주시청, 군산시청 등 도내 다

수의 공공기관에 납품됐고, 올해는 총 납도청과 한국철도공사에 납품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보안정책으로 ActiveX 사용을 금지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종속에서 벗어나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안을 고지함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ActiveX를 제거하고 필수 SW실행과 일을 통해 도내 ICT/SW기업의 SW품질 인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액티브엑스 방식이 실행과일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보안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주)아이티스테이션의 파일배포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써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는 이 외에도 다양한 시장 확대를 위해 국제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등 전시회에 참가해 해외 및 국내의 바이어들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관심을 얻고 있다. 이장규 (주)아이티스테이션 대표는 “지역거점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SW전문기업으로 자리 잡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